

“영어는 학습 도구일 뿐... 일단 재미있어야”

청심국제중 2학년 손하늘(15) 군은 영어전문학원이 전문한 경남 마산 출신이다. 그랜드 캡을 달고 유수의 국제중에 입학한 것도 놀라운데, 그는 지난 11월에 치러진 제48회 전국 영어스피치 콘테스트에서 중등부 대상을 차지했다. 비법을 묻자 손군은 “영어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게 왜 중요한지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영어 학습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의 영어 정복기를 들어봤다.

제48회 전국 영어스피치 콘테스트 중등부 대상

손하늘 (청심국제중 2)

주말마다 미국식 토론수업... 친구 사귀며 회화실력 다져
발음은 기본, 억양 액센트 자연스러운 아이컨택도 익혀야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내려갈 수 있어요. 이동 시간만도 왕복 8시간이지만 시간을 쪼개 박정어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전국 말하기스피치 콘테스트가 있다는 것도 학원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됐고요.”

손군은 매 주말 박정어학원 특별반에서 특목입시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가 아닌 원어민 선생님께서 미국식 토론수업을 듣는다. 특별반 멤버는 총 9명인데 마산에 베이스를 둔 상위권 고등학생이 대부분이고 부산국제고에 재학 중인 멤버도 있다고 한다. 문법 어휘 숙어 등의 기본 이론 수업은 배제하고 오로지 100% 영어토론 수업을 지향하는데, 원어민 선생이 유달리 영어 말하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손군에게 대회 정보를 프린트 해주며 참가해볼길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것이다. “처음엔 학교수업 따라잡기에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회 참가는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전국의 내로라하는 말하기 고수들 사이에서 저의 말하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손군은 “처음 출전하는 인지도 있는 대외 영어경시대회인데다 학교 시험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서류전형 원서를 내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며 “지금도 그 상황과 같다면 참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

나 역시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쓰기능력 평가 위한 에세이 작성
나이대에 맞는 주제 선정과
쓰기능력이 관건

손군의 말마따나 전국 영어스피치 콘테스트는 말하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의 에세이 작성을 시작으로 영어 4대 영역을 직·간접적으로 두루 평가하는 시험으로 참가자들의 대회 준비기간은 보통 한 달 이상이라고 한다. 시험을 코앞에 둔 손군에게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어학원 선생님에게 서류전형에 제출할 에세이를 첵삭 받고, 집에 있는 주말만이라도 온전히 대회준비에 시간을 할애하자고 마음 먹었다고 한다. “준비기간은 부족했지만 그래서 더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죠.”

첫 단계인 서류전형은 자유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하고 그 에세이를 낭독하는 동영상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었다. “맨 처음 주제는 ‘우리나라 입양아에 대한 문제’였어요. 입양아 문제를 사회적으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싶어서 선택했는데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작성했던 에세이를 보니 사실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수박 겉 핥기 식의 에세이였죠. 내 나이에 맞는 주제, 나의 주장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없는 주제를 다시 고민하다 결국 ‘한국 영어교육의 문제’를 주제로 택했고요.” 다소 진부한 주제가 될 수 있어 우리나라 영어 교육정책은 첫 단락에만 언급하고, 외국인 선생을 어떻게 활용해야 실용영어 학습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췄다. 또 학생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국인 선생을 채용하기 위해 다단계 채용 절차를 거쳐 까다롭게 선생을 발탁해야 한다는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생의 활용법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손군은 “결국 말하기 대회지만 서류전형에선 참가자의 쓰기능력과 주제에 대한 참가자의 이해도를 우선 평가한다”며 “평소 짧은 글이라도 꾸준히 작성해보고 전문가에게 첵삭을 받아온 학생이라면 주제 선택의 고민 외에는 어려움 없이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피치를 통한 주제 이해도와 발음, 액센트 평가
돌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는
침착함이 관건

서류전형에 통과한 참가자는 대회 접수기간에 홈페이지에 올렸던 스피치 동영상으로 예선 평가를 치르게 된다. “이전에는 동영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예선을 치르기 위해 서울에 와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

학교수업 따라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손군이지만 그의 책가방엔 항상 2~3권의 원서가 들어 있다. 공부를 하다 지치면 원서를 보며 머리를 식힐 수 있는데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책을 보면 영어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용기 기자 blog.veritas-a.com/photomx

